



2011.  
11 월

## 디자인 뉴스레터

디자인 생각 (7) 1  
좋은 공공디자인 사례

세계의 디자인 도시 여행 3  
〈독일 프라이부르크〉

우리 주변의 디자인 소식 5

디자인 마을 소개 8  
〈북촌 한옥마을〉

|| 기획 · 제작 || 디자인팀

### 디자인 생각 (7)/ 좋은 공공디자인 사례



▲ 미국 뉴욕 거리에 설치된 버스 승강장

## ▼ 우리 주변의 버스 쉼터(그림1, 그림2)



## 우리 주변 버스 쉼터 디자인의 문제점?

**그림1 : 패쇄적인 구조로 인해 어두운 분위기이며 이용자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패쇄적인 콘크리트 건물로 만들어진 버스 쉼터이기 때문에 내부는 항상 어두워서 오히려 이용자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쉼터의 패쇄적인 구조로 인해 버스운전자와 승차를 기다리는 승객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버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기존 버스 쉼터의 디자인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그림2 : 지역 상징조형물 및 상징 이미지를 지나치게 사용하여 과도한 이미지 남용을 초래한다.**

강진이 청자로 유명하다고 하여 강진의 모든 공공시설물에 청자 이미지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청자 상징 이미지를 사용하여 ‘강진 청자’ 고유의 품격 있는 아름다움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사성이 강한 고광택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고채도, 고명도 색채의 사용도 피해야겠습니다.

## 좋은 디자인의 버스 쉼터는?

**버스쉼터 벽면은 개방감 확보를 위해 투명재료를 사용합니다.**

개방감이 있어 이용자가 쉼터 안에 앉아 있어도 버스 운전자와 승객이 쉽게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방감이 있어 쉼터 안의 이용자가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과 파손 방지를 위하여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광고물 부착판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보도폭에 따라 버스 쉼터의 전체크기 및 폭을 조절하여 보행자의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유의해야겠지요.

## 세계의 디자인 도시 여행 / 독일 프라이부르크

### 사랑과 낭만이 흐르는 수로, 베히레

세계의 친환경 디자인 도시인 프라이부르크를 상징하는 또 하나는 ‘베히레’다. 베히레는 돌로 만들어진 길가를 따라 프라이부르크 시내의 곳곳을 굽이쳐 흐르는 실개천이다. 프라이부르크시를 관통하는 강 ‘드라이잠’부터 골목골목마다 흐르는 베히레는 발 담그고 놀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 별도의 물이 흐르게 하는 장치 없이 경사진 도심의 지형을 이용해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 도심을 따라 흐르는 베히레

1500년대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베히레는 원래 소방용 수로였다고

한다.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었던 중세시대에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소방 수로라는 것이다. 원래는 독일 곳곳에 베히레가 있었으나 현재 독일에서 베히레가 남아 있는 도시는 프라이부르크가 유일하다. 프라이부르크 관광 안내소 측은 “시내에는 흔히 30~50cm의 작은 베히레가 많이 있지만, 폭이 2m가 넘는 대형 베히레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히레는 도시를 감고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베히레는 프라이부르크가 ‘디자인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중세시대를 연상케 하는 건물과 도심 곳곳을 가로지르는 실개천 ‘베히레’가 그려내는 도시의 아름다움에 관광객들은 눈을 떼지 못한다. 아이들은 첨벙첨벙 베히레에 뛰어 들어가고 지나가는 강아지들은 목을 축인다. 또한 베히레에 발이 빠지면 이곳의 처녀, 총각과 사랑에 빠진다는 아름다운 전설에 프라이부르크를 찾는 젊은이들은 가슴이 설렌다.

몇 백 년 전부터 보존해 내려오는 작은 수로 하나가 도시 디자인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시설이자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참고문헌 :

- 「독일 프라이부르크」, 『한겨레신문』
- 「뉴 시티노믹스 시대-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서울신문』
- 「獨' 태양도시 프라이부르크를 가다」, 『서울경제』
- 「에너지전쟁 유럽 현장을 가다」, 『디지털타임스』
- 「'새 연재'기후변화 적응 현장을 가다①」, 『동아일보』
- 「서울과 삶의 질 차이가 '하늘 만큼 땅 만큼」, 『오마이뉴스』

김철, 『도시, 디자인에 눈을 뜨다』, 조이력클럽, 2010

사진 출처 : [cafe.naver.com/nongjangju](http://cafe.naver.com/nongjangju)





- ▲ 사람들은 베히레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기도 한다.
- ▼ 너비가 넓은 베히레도 있다.



- ▲ 아이들의 재미난 놀이터가 되어주는 베히레

## 우리 주변의 디자인 소식

### 2011 우수포장디자인 상품전시회

지난 달 21일부터 10일간 개최된 ‘대한민국농업박람회’(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2011 우수포장디자인 상품전시회》가 열렸다.

‘오감을 자극하는 그린 패키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300여 점에 이르는 국내·외의 우수 포장 디자인 제품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하였다.

포장 디자인 전시와 더불어 농업인과 디자인 관련 업체, 공무원들의 의견 교류와 디자인 마인드 증진을 위한 세미나 시간을 마련하였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장 김남훈 교수가 「포장 브랜드」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정기석 전라남도 공공디자인과장은 “전시회를 통해 전라남도의 농·수·특산물의 브랜드를 정립시키고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켜 디자인을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2011 우수 포장 디자인 상품전시회’의 모습을 잠시 들여다보자.



▲ 포장디자인 전시회 입구 모습  
▼ 전시회 안내 브로셔







재생지의 친환경적이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린 포장 디자인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차 포장 디자인



▼ 병 모양을 포장 상자에 그려 넣어 개성을 표현하였다.  
재생용지의 색감과 포인트로 사용한 빨간색이 잘 어울린다.



▲ 미주 및 유럽제품' 상품디자인 전시 모습  
▼ 미국의 음료 용기 포장 디자인





## 디자인 마을 소개

### 북촌 한옥마을



**창덕궁** 돌담길 옆으로 난 마을 안길을 따라 걸다보면 마치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이라도 탄 듯 좁은 골목길과 소담한 한옥 건물들을 만날 수 있다. 경복궁까지 이어지는 이 마을을 ‘북촌’이라 부른다. 조선시대 권문세가들의 거주지였던 이곳은 몇 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옥마을이 잘 보존되어 빌딩 숲 가득한 서울 시내 한가운데에서 전통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을이다.

**물론**, 북촌 한옥마을이 지금처럼 잘 보존되기까지에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한옥보존 정책을 시행했던 시기는 1980년대였다. 산업 개

발에 따른 변화가 확산되면서 한옥을 보존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정책은 주민과의 논의나 합의 없이 행정 주도로 시행되었고, 북촌 길의 폭을 넓히면서 많은 한옥들을 철거하는 등 이중적인 행정 운영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다시 규제가 완화되고, 북촌 전역에서 한옥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일이 잦아져 북촌의 경관은 급속히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옥의 멸실과 무분별한 다세대 주택의 신축 등으로 북촌의 경관이 변해가고 주거환경도 악화되어가자 1999년 주민조직인 '종로북촌가꾸기회'의 요구로 서울시에서는 주민과 전문가와 더불어 새로운 북촌 가꾸기 정책을 새로이 수립하게 된다. 기존의 일방적 규제와는 달리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는 북촌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현대적 생활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한옥 고유의 아름다움이 유지되도록 한옥 수선을 유도, 지원하고 관리했다. 또한 주민들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마을의 환경은 개선되어 갔고, 거주지로서의 매력을 증진시켜가는 과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한옥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커플, 아기자기한 한옥 카페와 액세서리 상점을 담기 위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관광객의 모습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한옥 특유의 고즈넉한 공간에 스틸과 유리 등을 이용하여 재해석된 건물들이 그려내는 미묘한 어울림에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이렇듯 북촌의 골목길은 한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이 담긴 생활공간이면서 동시에 한옥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공유하는 도시경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작은 한옥들이 모여 만들어 내는 골목길 풍경의 아름다움은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경관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북촌의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골목길의 관광자원화를 시도했다. 북촌의 가장 아름다운 지점을 8곳을 찾아 ‘북촌 8경’으로 지정하고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네 개의 길에 테마별로 이름을 붙여 도보 관광코스로 만들었다. 북촌을 걷다보면 한 손에는 골목길이 그려진 ‘북촌 관광지도’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모바일 관광안내 단말기’를 든 관광객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서울시가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관광 서비스로 북촌 마을과 골목길에 얹힌 역사, 문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북촌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직접 한옥을 체험하고 국악, 다례, 천연염색, 매듭공예 등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 아름다운 골목길을 관광코스로 만들어 안내한다.  
▼ 북촌 한옥마을 관광안내지도



**한편** 북촌에 모여살고 있는 많은 예술인과 전통 기능 보유자들은 저마다 갤러리와 공방 등을 열어 한옥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안겨준다. 최근에는 건축가, 디자이너들이 북촌의 역사성 속에 함께 하고자 북촌 내부에 작업실과 사무실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북촌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내용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다.

**이곳에** 자리 잡은 가게의 주인들 역시 아름다운 북촌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한옥마을의 명성에 걸맞게 정갈하고 아름다운 거리 경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약속에 동참하였다. 한옥과 어울리는 정갈하고 소담한 외부장식과 모던하게 디자인된 간판들이 바로 그 증거이다. 기존의 전통한옥 공간에 현대적인 건축요소를 가미하여 만들어진 모던한 세련미가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감성을 자극한다.

**북촌한옥마을의** 성공은 가운데에서 중심을 잘 잡고 정책을 잘 이끌어 간 서울시와 한옥마을 경관 조성을 위한 주민과 사업주들의 참여와 희생, 그리고 전문가와 예술인들의 노력이 함께 빚어낸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서** 잠시 벗어나 전통 마을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북촌 한옥마을의 매력으로 인해 국내외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이곳을 찾고 있다.

#### ※ 참고

북촌한옥마을 홈페이지 <http://bukchon.seoul.go.kr>

#### ◀북촌 8경의 모습들







▲ 삼청동 전망대

삼청동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망할 수 있게 데크를 설치하였다. 보호대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투명창으로 제작한 세심함이 엿보인다.

▼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공사 가림막



▲ 포토 스팟 : 사진 찍기 좋은 지점을 소개한다.

▼ 모바일 안내 서비스 간판





▼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간판들





